



보도시점 11. 1.(금) 15:00 이후 배포 2024. 11. 1.(금)  
※ 엠바고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**재외동포청·국가유산청,  
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교육 강화 위해 협력한다**  
- 역사·문화·국가유산 교육 분야 등 상호협력 MOU 체결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이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청(청장 최웅천)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.
  - 두 기관은 11월 1일(금)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상덕 청장과 최웅천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,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- 이번 MOU 체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설·재편된 두 기관이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교육 강화 및 해외에서의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에 있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역량, 네트워크를 상호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.
  - ※ 재외동포청 '23.6.5. 신설 / 국가유산청 '24.5.17. 재편
  - 협약의 주요 내용은 ▲해외 한글학교 등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역사·문화·국가유산 교육 관련 상호협력, ▲재외동포와 현지인 대상 국가유산의 인식 개선 및 이해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, ▲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간 유대감 증진을 위한 협력 등이다.
  - 특히, 재외동포청은 올해 시범사업으로,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과 협력해 유럽지역 15개국 58개 한글학교 대상 3천200여 개의 교육꾸러미\*를 지원한다.
    - \*교육꾸러미 구성 : 임금님의 성장일지 등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(활동지, 키트, 교사 학습안 및 시나리오)
  - 또한, 국립고궁박물관은 교사 대상 비대면 수업도 실시해 국가 유산 콘텐츠가 현지 역사·문화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

## 엠바고

지원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 두 기관은 이번 MOU를 계기로 협력 사업과 분야, 지역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기로 했다.

□ 이상덕 청장은 “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은 재외동포청의 핵심 정책 목표 중 하나로, 국가유산청과의 협력을 통해 정체성 교육이 활성화 되고, 콘텐츠가 확대·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두 기관의 협력 사업이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성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사진 자료는 행사 이후 별도 배포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교육문화지원과	책임자	과장代	이명재	(032)585-3207
		담당자	주무관	-	-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